

##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 『変身』 번역에 나타난 인칭 직시 표현: Gutt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우메무라 마유미  
(한국외대)

### 1. 서론

번역이 이문화(異文化)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번역자는 번역된 텍스트를 읽는 도착어(target language, 이하 TL) 독자가 마치 출발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를 읽는 것처럼 출발어(source language, 이하 SL) 독자와 같은 문학적 정취와 향기를 얻을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번역자는 ST와 도착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 독자를 연결하는 문화적 중개자(cultural mediator)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ST에서 의미 공유된 정보를 TT 독자가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번역자는 글의 흐름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그 정보를 TT 독자에게 전달되도록 최적의 방법을 찾고 번역해야 한다(Fawcett 2015:243).

번역 가운데 문학작품 번역은 어려운 작업이다. 문학작품 텍스트는 단순한

언어 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상응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가진 복잡하고 다차원적 구조이기 때문이다(김효준 2004: 18). 특히 소설은 서술의 초점, 즉 화자, 청자, 그리고 화제에 나타난 제3자를 가리키는 시점(point of view)에 따른 언어적 기호에 의하여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 언어적 기호 중 인칭대명사는 SL와 TL의 문법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둘러싸는 문화적 화용의 특징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송선화·上原聰 2006: 893) 소설을 이해하는 데 제외할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영어 문법에서 일반적으로 1인칭 대명사 ‘I’는 말하는 사람, 2인칭 대명사 ‘you’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으나 실제 한국어 또는 일본어 대화에서 상대방을 가리키는 ‘you’는 2인칭 대명사 ‘당신/너, あなた/君’라고 사용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나 조부모, 선생님이나 회사 상사와 같은 손윗사람을 부를 때가 그것이다. 한·일 양 언어에서 사람을 가리킬 때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한·일 양 언어는 언어사회에서의 대인인식, 즉 상대방과의 상하관계나 친소관계와 같은 주관적 가치판단이(平子義雄 1999: 92) 인칭대명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일 인칭 표현은 한국인·일본인이 자신·상대방·제3자를 결정하는 화자의 시점과 실제 발화 상황에 직접 관여되기 때문에 영어 인칭대명사의 개념을<sup>1)</sup> 그대로 받아들여 분석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어 또는 일본어의 인칭 표현 연구를 살펴보면 영어를 중심으로 한 이론과 연구 결과를 고정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분석한 것이 주류로, 한국어 또는 일본어에 나타난 개별 언어의 특성을 주제로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진행되지 않았다.

본고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특유한 전용(轉用)이 일어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인칭 표현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영어의 대명사 개념을 넘어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명사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화용적 측면에서 직시 현상에 나타난 한·일 대조 분석과 인칭 표현에 내포된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3장에서 커뮤니

1) 영어 인칭대명사는 성별·상하관계·친소관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 것이기(平子義雄 1999: 91-92) 때문에 한국어·일본어의 인칭 개념과 상이하다.

케이션과 발화 해석을 논의한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도입한 구트(Gutt)의 접근법(Baker and Saldanha 2013: 163-165)을 바탕으로 텍스트에 나타난 인칭 직시 양상을 분류하고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앞 3장에서 추출한 인칭 직시를 통하여 원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직시 표현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또한 번역자가 텍스트의 메시지가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번역 결과물에 어떻게 반영시키려고 했는지 현시적 커뮤니케이션의 견해를 통하여 밝힐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이론적 배경

#### 2.1.1 Gutt의 관련성 이론 접근법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 이하 RT)이라고 불리는 스피버와 윌슨(Sperber and Wilson 1986)이 제시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화용론 모델인 관련성 이론은 ‘인간은 왜 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부터 출발하였다. 그들은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이 인간의 언어 체계에만 한정된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사고(또는 인지)체계 전반에 귀속되는 핵심적 과제라는(Moeschler and Reboul 2004: 99) 가설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밝히려려고 한 것이다.

스피버와 윌슨은 그라이스(Grice)의 추론모델<sup>3)</sup>을 기반으로,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적 요인인 직시와<sup>4)</sup> 추론적 커뮤니케이션은(이성재 2000: 149) 청자

에 의한 언어적 의미의 해독을 토대로 하여, 그 해독결과와 문맥을 추론함으로써 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복원한다고 주장한다(東森勳·吉村あき子 2003: 11). 특히 추론이 발화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수정된 추론모델’로서의 RT를 제시하였다. 그들이 주장한 ‘관련성’이라는 개념은 ‘인지적 또는 문맥적 효과(cognitive/contextual effect)’<sup>6)</sup>와 ‘처리 노력(processing effort)’<sup>7)</sup> 사이의 균형에(井門亮 2017: 109) 의하여 달성된다고 본다. 즉 인간은 더 깊고 넓게 이해하기<sup>8)</sup> 위하여 더욱 효과적 방식을 취한다는 인지원리를 바탕으로 최소한 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 이러한 경제성 높은 지적처리를 지향한다는 인지시스템과 연관시켜(加藤重弘 2004: 88-90) 커뮤니케이션을 해명하려고 한 것이다.

문맥과 인지를 기반으로 번역을 평가하는 관점으로 구트(1991)에 의한 RT 접근법을 들 수 있다(Baker and Saldanha 2013: 175). 그는 TT를 ‘커뮤니케이션의 이차적 행위’로 보고 일차적인 커뮤니케이션인 ST의 맥락적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TT 독자와 적절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Fawcett 2015: 265). 따라서 번역은 원저자의 의도 또는 생각을 충실하게 재현해야 한다는 충실성(faithfulness)에 초점을 두고, 해석적 유사성을<sup>9)</sup> 바탕으로 재현해야 한다고 본다. 즉 구트가 다룬 논점은 번역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사고 또는 의도를 검토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견해와 RT를 통하여 구트는 번역을 ‘직접 번역(direct translation)’과

- 2) 스피버와 윌슨이 제시한 용어 ‘relevance theory’는 관련성 이론 이외에 ‘적합성 이론, 관여성 이론, 인지적 화용론’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관련성 이론(RT)’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3) ‘추론 모델’은 ‘협조의 원리’와 ‘대화의 격률’에 의하여 발화와 문맥적 지식을 통하여 언어 외적 의미, 특히 ‘발화의 함의(conversational implicature)’를 추론적으로 어떻게 생성·해석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이다(林宅男 2007: 65).
- 4) ‘직시’란 의미론과 화용론에서 사용하는 ‘지시’를 의미하는 용어이고, 맥락에 대한 의존성을 기호화하는 언어 표현과 그러한 표현의 사용에 쓰인다.

- 5) 스피버와 윌슨은 그라이스의 모델을 비판하면서도(이성재 2000: 146) ‘관계의 격률’을 관련성 이론의 핵심적인 원리로 삼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계의 격률’만으로 문맥과 추론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6) ‘인지적/문맥적 효과’란 신정보(new information)에 의하여 구정보(old information)에 추가되는 조작(操作), 즉 인지적 경험세계(인지환경)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말한다(橋高眞一郎 2008: 140).
- 7) ‘처리노력’은 청자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노력(勞力), 즉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바탕으로 구정보에 접근할 경우에 일어나는 난이도(accessibility)를 말한다(橋高眞一郎 2008: 140).
- 8)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도 포함하여 이해하는 것이다(加藤重弘 2004: 90).
- 9) RT에서 주장한 논의 ‘해석적 사용법(interpretive use)’을 응용한 것이다. ‘해석적 유사성’이란 두 개의 명제 형태는 어떤 논리적 특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발화와 사고의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한 RT의 중심적 개념이다.

‘간접 번역(indirect transration)’ 두 가지 유형으로 이분화한다. 직접 번역은 TT 독자가 ST에서 의도한 것과 같은 해석으로 도달할 수 있는 번역이고 간접 번역은 이(異) 언어 간의 해석적 사용(interpretive use)을<sup>10)</sup> 필요로 하는 번역이다 (Baker and Saldanha 2013: 164). 요컨대, 직접 번역은 번역자가 ST의 명시적 내용에 충실한 경우의 번역이며, TT 독자는 인지환경<sup>11)</sup>에서 ST와 TT에서 나오는 차이점을 보완하여, 완전한 해석적 유사성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편, ‘간접 번역’은 번역자가 자유롭게 자세히 설명하거나 요약한 경우의 번역이다. 즉 번역텍스트로 느껴지지 않도록 TL의 가독성이나 소통 효과를 중시하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ST와 TT 사이에 생기는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TT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SL와 TL 간의 인지환경 간격을 채우기 위하여(양창현 2015: 31-33) TT에 추가 또는 생략된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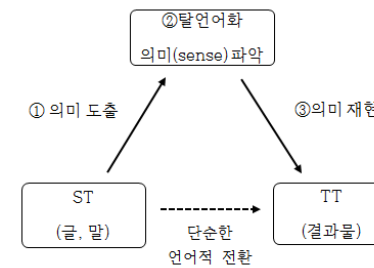
### 2.1.2 텍스트 메시지의 의미 이해

번역이 이문화(異文化) 커뮤니케이션의 중개적 역할을 맡는다면 번역자는 ST와 TT 사이의 문맥적, 의미적 등가를 이룰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 RT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청자가 언어의 의미(어의)의 이해로부터 의미 추출에 이르는 논리적 추론 과정은 청자의 언어 외적 지식의 도움을 받으면서 화자(원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복원한다고 하나(Lederer 2001: 15-16), 이러한 인지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번역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생산할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풀 단서로 셀레스코비치 (Seleskovitch 1976)는 ‘의미의 이론(Theory of sense)’이라고 불리는 번역의 ‘해석이론(Interpretive Theory of Translation)’을<sup>12)</sup> 제시하여(Pöchhacker 2020: 77) 언어 이해의 인지적 측면에 접근하여 논의하였다.

- 10) 해석적 사용이란 타자의 발화나 사고를 해석하고 재현한 것을 말한다.
- 11) ‘인지환경’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 속의 사실들에 대한 인식까지도 포함한다(Sperber and Wilson 1993: 56).
- 12) ‘해석이론’의 기반은 회의 통역에서의 동시·순차 통역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한 해석적 접근방법이지만(박숙중 2002: 534) 이 이론은 번역자가 번역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최정화(2001: 173)도 언급하고 있다.

셀레스코비치(1989)는 번역과정에서 번역자는 ST의 언어적 형태를 탈피하여 그 언어에 내포된 의미(sense)를<sup>13)</sup> 파악, 추출하는 탈언어화 또는 비언어화(deverbalization)를<sup>14)</sup> 통해 TL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표현으로 재현해야 한다고(강수정 2019: 8에서 재인용) 주장한다. 그는 번역의 본질을 탈언어화, 의미(sense)로 보고 번역과정을 3단계로 분류한다. 해석이론에 따른 번역 과정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해석이론의 번역 3단계 모델



그런데 셀레스코비치는 단순한 언어적 전환을 객관적 방법이 아닌 보다 기계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왜냐하면 그는 번역 행위의 핵심을 번역자의 ‘의미’ 이해와 표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한 언어적 전환 방법, 이를테면 고유명사와 숫자, 전문용어 등 고정된 대응어가 정해져 있는 경우나 이미 굳어진 번역어가 존재하는 경우를(近藤正臣 2013: 123) 제한적이지만 인정한다.

이렇듯이 해석이론은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이분법적 번역방법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서 살핀 구트의 접근법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언어적 전환’은 직접 번역과 유사하고 ‘탈언어화 방법’은 간접 번역에 가깝다.

- 13) 의미란 텍스트 맥락(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하여 파악되는 메시지의 의미를 가리킨다(박숙중 2002: 534).
- 14) 레더러(Lederer 1994)는 ‘탈언어화’를 ST의 한 대목의 의미가 속속들이 이해되었을 때 일어난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탈언어화에 의하여 언어적 형태들이 소멸된다고 해도 정보의 손실이나 오류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Lederer 1994, 전성기 2001: 37에서 재인용).

### 2.1.3 직시 표현과 인칭 직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할 때 특정한 맥락에 의존한다. 맥락이란 화자, 청자, 발화시간, 발화장소, 지시된 대응물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것을 종합하여 지칭하기 위한 화용론적 지표(pragmatic indices, co-ordinates or reference points)의 집합을 말한다(Levinson 1983, 이익환·권경원 1992: 61에서 재인용). 이 맥락을 해석하려면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직시다(강범모 2018: 269).

직시 표현에 있어 지시 대상을 특정할 때, 대상을 어느 시점(視點)에서 관찰하는가 하는 일정한 기준점이 있다(塩田英子 2015: 81). 기본적으로 직시는 화자를 중심으로 발화 상황에서 대상을 직접 가리키기 때문에(나찬연 2007: 115) ‘화자(나), 발화 시간(지금), 화자의 위치(여기)’가 직시의 중심(deictic center)이 된다. 일반적 상황에서 직시 표현은 발화의 문맥에 의존하기 때문에(강범모 2018: 269) 화자가 바뀔 때 따라 직시 중심도 이동한다.

발화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의 역할을 직접 지시하는 인칭 직시는 복수(plurality)와 성(gender)에 기반을 두고(목정수 2014: 15) 일반적으로 인칭대명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그 사용법은 다양하다. 왜냐하면 사용되는 직시 표현은 화자가 청자 또는 지시체에 대한 화자 자신의 심리적 태도(정희자 1997: 330)나 사고내용이 가장 직접적, 거시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설 텍스트는 인칭 직시 표현이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인칭 직시가 원저자나 등장인물의 인지 틀을 제공하여(한미애 2013: 390), 그들이 바라보는 대인관계에 있어 상대방에게 심리적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설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칭 직시 표현 해석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인칭체계는 다음 그림 2와 같다.<sup>15)</sup>

그림 2 한국어 및 일본어의 인칭체계<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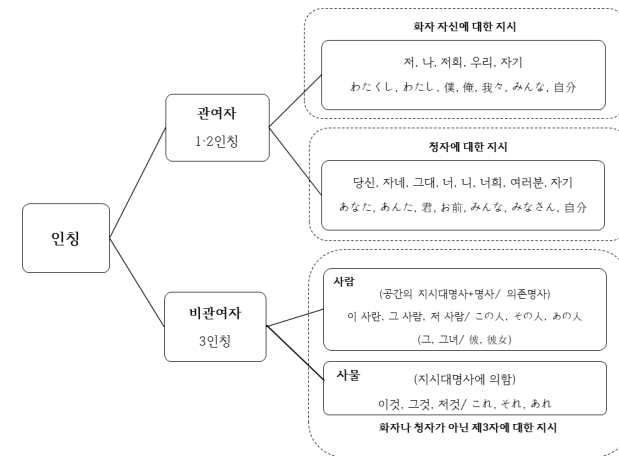


그림 2 이외에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인칭대명사라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지 않지만 화자·청자를 직접 가리키면서 그 발화 맥락에 의하여 가리키는 대상이 변화하는 어휘, 즉 인칭과 같은 표현을 하는 어휘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를테면 ‘아버지(お父さん), 어머니(お母さん), 할머니(おばあちゃん)’ 등 친족명칭은 발화 상황에 의하여 1·2·3인칭을 나타낼 수 있고, ‘교수님(教授), 스승님(師匠)’ 등 상하관계, 또 ‘사장님(社長), 과장님(課長)’ 등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위명칭, 직업명칭 등은 3인칭과 2인칭을 나타낸다.

이렇듯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인칭 직시는 1·2·3인칭 대명사뿐만 아니라 친족명칭(친족 내 관계)·지위(사회적 계층)·고유명사·직업 등과 이들 간의 조합형태에서 표현되는 호격도 포함되어(Huang 2009: 171), 맥락에 따라서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는 특유성을 가진다.

RT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인지적 효과’와 ‘처리노력’과의 균형이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진행된다는 입장이다(塩田英子 2015: 82-83). 이것을 ‘관련성의 원

15) 스즈키 다카오(鈴木孝夫 1973), 디쿠보 유키노리(田窪行則 1997), 긴다이치 하루히코(金田一春彦 1988), 모리모토 데쓰로(森本哲郎 1988) 등은 일본어에는 원래 인칭대명사라는 품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허용, 김선정(2013: 175)은 한국어에는 단어로서의 3인칭 대명사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편의상 1·2·3인칭 대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림 2는 고이즈미 디모쓰(小泉保 2001: 10)를 필자가 재작성한 것이다.

16) 비관여자 ‘그/彼, 그녀/彼女’는 영어 ‘he, she’를 번역하는 데 만들어진 어휘이다. 따라서 일상 대화에서 부자연스러운 표현이기도 한다(金田一春彦 1988: 167; 강범모 2018: 271-272).

칙'이라고 하는데, 발화 또는 글 안에서 미리 말해진 대상을 지시하는 조응(anaphora) 관계<sup>17)</sup> 분간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조응 표현에 들어가는 처리노력과 관련지어 아리엘(Ariel 1998)은 청자에 의하여 해석될 인칭 직시(personal deixis)의 '도달가능성(accessibility)'<sup>18)</sup> 표시 등급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청자가 화자의 어떤 표현을 들었을 때 가장 간결한 형태를 지닌 언어적 단서(cue)를 사용하려고 한다는(이성범 2001: 322-323에서 재인용) 경제성 원리와 일치하는 가설이다. 도달가능성이란 정보처리적 측면에서 청자가 지시 대상을 해석, 처리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말하는데, 영 조응어(零照應語 zero anaphora, Ø) 또는 영 대명사(零代名詞 zero pronoun, Ø)가 가장 도달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으로 재귀대명사, 일치 표지, 강세가 없는 인칭대명사, 강세가 있는 인칭대명사<sup>19)</sup> 등의 순으로 낮으며, 이어 이름, 성, 성과 이름의 순으로 도달가능성이 낮은 지시 표현이라는 것이다.<sup>20)</sup> 이러한 등급은 처리노력이 적게 들면 들수록 그 정보의 도달가능성, 즉 맥락적 효과가 높아짐을 뜻한다.

## 2.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어 또는 일본어 인칭

- 17) '문맥 지시'라고 불리기도 하는 조응은 조응 대명사에 의하여 지시된다. 조응 대명사는 앞에 나온 언어적 표현과 똑같은 실체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명사이다. 조응 표현은 발화 그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담화상의 어떤 부분을 지시하기 위한 어떤 발화 내에 있는 표현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Levinson 1992: 93) 점에서 담화 직시에 속한다. 본고에서 조응 대명사가 인칭대명사로 출현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칭 직시 분석에 포함하여 다루기로 하였다.
- 18) 정보성(informativity)·고정성(rigidity) 약소화(attenuation)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된다(이성범 2001: 324).
- 19) 아리엘(1998)에서 강세가 있는 대명사와 강세가 없는 대명사의 대비는 그의 표기에 있어 두드러진 표기, 이를테면 3인칭 대명사를 'HE, SHE'와 같은 표기가 강세가 있는 대명사이고 'he, she'는 강세가 없는 대명사라고 설명하고 있다(이성범 2001: 324에서 재인용).
- 20) 이 등급은 언어 표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억의 유형 및 지시 표현의 조응 관계에 있는 선행사와 조응 대명사 사용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밀접히 연관된다(이성범 2001: 322-328).

대명사 연구나 외국어교육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비롯하여 한·일 두 언어 간의 대조 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정혜선(2002)은 일본어교육에서 일본어 인칭대명사 습득은 인칭대명사 습득이나 학습보다는 우선 문법 및 어휘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권 일본어학습자가 담화에서 인칭대명사를 과잉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인칭대명사를 과잉 사용하는 배경에는 한·일 언어의 사용빈도 차이가 큰 영향을 줌을 밝혔다. 송선화(2006)는 기존 연구는 인칭대명사가 지니는 제한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오기 니오미(小本直美 2016)에서는 인칭에 관련된 한·일 대조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한·일 인칭대명사를 포괄적 및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조연구가 희소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송선화(2006)와 오기 니오미(2016)는 연구를 통하여 적절한 인칭대명사 사용은 커뮤니케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불가피적인 요소이며, 각각 언어사회에서 원활한 대인관계 구축과 한·일 언어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일본어와 비교해 보면 한국어는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에 관련된 인칭대명사 및 인칭을 나타내는 어휘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언어마다 다르게 지니는 인칭에 관한 개념과 아울러 인칭 표현의 보편성 연구가 더 진행되면 언어사용에 존재하는 문화적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달성, 나아가 TL 독자에게 인지적 효과가 높은 TT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인칭 직시 표현 번역 양상

### 3.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본고는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택하였다. 그는 추리, 공포, 판타지, SF 등, 소위 장르소설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다. 장르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의 이름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서도 잘 알려지게 되었다. 교보문고는 2009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0년 간의 소설 누적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히가시노 작품이 약 127만부가 판매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작가로 꼽았다.<sup>21)</sup> 이러한 인기를 배경으로 2019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그의 작품 6권이 새로 번역되거나 또는 재번역되어 출간되었다.<sup>22)</sup>

본 연구는 2019년에 출간된 히가시노 작품 중에서 TT2를 택하기로 하였다. 선택 조건으로 기존의 번역본 번역자 및 출판사가 다른 것, 번역자의 성별이 다른 것, 세 가지를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것은 르페베르(Lefevre 1992)가 제시한 번역을 통제하는 요인들<sup>23)</sup>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설의 시점을 고려하여 1인칭 시점 작품을 택하기로 하였다. 1인칭 시점은 화자의 내면세계, 즉 심리적 내부 의식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sup>24)</sup> 이러한 요인들을 검토하여 분석 텍스트를 『変身』(1991)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텍스트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분석텍스트

원저자 및 번역자	작품 제목	출판사	출간 연도
ST 東野圭吾	変身	東京: 講談社	1991
TT1 이선희(여)	변신	서울: 창해	2005
TT2 권일영(남)	사소한 변화	과주: 비채	2019

분석 방법은 ST와 TT1, TT2에 나타난 인칭 직시 표현을 구트가 제시한 RT 접근법을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구트는 번역 유형을 직접

21) 문화뉴스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91>

22) 채널예스 <http://ch.yes24.com/Article/View/39497>

23) 르페베르는 번역을 통제하는 세 가지 중요 요소인 ‘문학시스템 안에 전문가(professional)’, ‘문학시스템 바깥의 후원자(patron)’, ‘시학(poetics)’를 제시하였다. 이때, ‘전문가’는 번역자 자신, ‘후원자’는 출판사가 여기에 해당하며, ‘시학’은 특정한 시기에 문학 시스템을 통제하는 예술적 규범을 가리킨다(우메무라 마유미 2019: 163-164에서 재인용).

24) 다른 작품과의 큰 차이는 주인공이 뇌 의식수술을 받은 후, 인격 변화가 일어나 원래 지닌 자아가 서서히 사라져 가는 공포와 갈등, 그에 수반되어 상대방을 보는 시점과 판단 기준의 변화가 인칭 직시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다.

번역과 간접 번역으로 구분하였는데, 본고에서는 간접 번역 유형을 다시 하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번역 유형은 <표 2>와 같다.

<표 2> 구트의 번역 처리방법 유형

번역 유형		번역 처리방법
직접 번역	D→D	SL의 어휘가 TL의 어휘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SL 어휘의 소리 그대로 TL에 전이(차용)하는 방법
간접 번역	D→D'	해석적 유사성을 유지하며 ST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TL의 일반적 표현, 또는 동일한 이미지로 대체하는 방법
	∅→D	해석적 유사성을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TL 표현을 재현하기 위하여 ST에서 생략된 어휘를 첨가하는 방법
	D→∅	해석적 유사성을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TL 표현을 재현하기 위하여 ST의 어휘를 생략하는 방법

### 3.2 인칭 직시 표현 분석

본 절에서는 텍스트에 나타난 인칭 직시 표현을 구트가 제시한 직접 번역과 간접 번역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 3.2.1 직접 번역

직접 번역(D→D 형)이란 해석적 유사성에 의존하여 ST의 명시적 내용을 충실히 재현하기 때문에 번역텍스트로서의 성격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번역을 말한다.

[예 1, 2]에서 나타난 인칭 직시는 사람의 성(姓), 즉 고유명사다. 고유명사의 번역은 주로 단순한 언어전환 방법을 취하는데, ST ‘タチバナ/橘’는 TT에서 ‘다치바나’로 음차 번역되어 있다.

[예 1]

ST: 僕の意図を察したらしく、タチバナ助手がいった。この時彼女を見て、どこかで見たような顔だと思った。(14)

TT1: 내 의문을 눈치 챘는지 다치바나가 말했다. 그때 그녀의 얼굴을 보고, 다시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7-18)

TT2: 내 의도를 눈치했는지 다치바나 조수가 말했다. 그녀를 보고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17-18)

[예 1]에 나타난 인칭 직시는 성(タチバナ/다치바나)을 사용하여 대화 참여자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한 뒤, 바로 이어지는 문맥에서 대명사(彼女/그녀)를 사용함으로써 지시의 연계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맥적 지시가 보편적인 유형인데, 이때 ‘彼女/그녀’는 대명사적 조응(pronominal anaphora)이라고 하여 선행사(antecedent)인<sup>25)</sup> 고유명사와 동일한 지시 관계를 나타내는 전방 조응(anaphora)이다.

이와 달리 [예 2]는 고유명사(橋/다치바나)가 오고 그것에 이어지는 문맥에서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선행사인 고유명사를 반복함으로써 그 연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 2]

ST: 「退院はいつ頃になりそうですか」晝食の後に橋さんに訊いた。このところ、これが僕の口癖になりつつある。「あと少しよ」橋さんは答えた。(62)

TT1: “언제쯤이면 퇴원할 수 있을까요?” 점심을 먹고 나서 다치바나에게 물었다. 이 말은 최근의 내 입버릇이다. “조금만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치바나가 대답했다. (75)

TT2: “퇴원은 언제쯤 하게 될까요?” 점심식사를 마친 뒤 다치바나 씨에게 물었다. 요즘 이 질문이 입버릇이 되어가고 있다. “조금만 더 있으면요.” 다치바나 씨가 대답했다. (68)

영어의 경우, 대화 참여자를 밝히기 위하여 주로 대명사에 의한 지시에 의존한다. 즉 이미 언급된 참여자를 지시하기 위하여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영어와 달리 한국어와 일본어는 3인칭 대명사 ‘그/彼’나 ‘그녀/彼女’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대신 고유명사나 보통명사, 또는 지시 대명사가 대응되어(小泉保 2001: 9-10) 지시의 연계성을 표시하기도 한다.

25) 원래의 표현 A 대신 쓰이는 표현 B가 조응어인데, 그 조응어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표현 A를 B의 선행사 또는 조응사라고 한다. 선행사는 명사 혹은 명사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이성범 2001: 272; 加藤重弘 2004: 169).

베이커(Baker 2005: 261)는 모든 언어에는 지시의 특성을 가진 특정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텍스트 유형 또는 담화 종류에 따라 선호하는 대명사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특정 지시 유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을 [예 2]는 뒷받침하는 예이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인의 성(姓) 표기는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예 1, 2]를 보듯이 같은 사람의 성을 한자 ‘橋’와 가타카나 ‘タチバナ’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왜 원저자는 가타카나 표기를 굳이 선택한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논의는 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 3.2.2 간접 번역

간접 번역이란 ST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TL의 일반적 표현, 또는 등가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법과 ST와 TT 사이에 생기는 차이를 TT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SL과 TL 간의 인지환경 간격을 채우려고 하는 번역을 말한다.

#### 1) D→D' 형

[예 3]

ST: その第一は、僕を撃った犯人のことだった。あの男はその後どうなったのだろうか。(24)

TT1: 첫 제, 나를 쏜 범인에 관해서. 그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30)

TT2: 첫 번째는 나를 쏜 범인에 대한 것이었다. 그 남자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29)

화자가 직시 표현을 사용할 경우, 청자는 화자가 의도한 대상을 찾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이나 ‘단기 기억(short-term memory)’을<sup>26)</sup> 바탕으로 주의를 집중한다. 지시 표현은 그들이 사용되는 인지적 상태, 소위 ‘알려진 상태의 계층(givenness hierarchy)’에 따라 형성된다(이성범 2001: 328-335). [예 3]은 청자의 장기 기억 속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친숙한(familiar) 상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대상은 그 발화 전

26) 장기 기억에 속한 대상은 그 발화전에 언급된 것이고, 한편 단기 기억에 속한 대상은 대화 상황에서 주고받으면서 연계 된 것이다(加藤重弘 2004: 146).

에 언급된 것이며, ‘인칭대명사’, ‘지시 관형사+명사’와 같은 직시 표현으로 나타난다. [예 3]을 보듯이 TT1은 전자를, TT2는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어는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도 지시체(사람이나 사물)를 잘 알고 있는 경우, ‘あの’를 사용하여 지시 대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어 ‘あの’에 대응하는 ‘저’를 조용 대명사로 쓰이는 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가 사용된다. TT2는 ST ‘あの男’를 ‘그 남자’로 번역함으로써 ST의 의미를 바꾸지 않도록 TL의 일반적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다.

[예 4]

ST: 「質問をしてきました。成功ですよ、先生」若くて顎の尖った男がいった。(7)

TT1: “질문을 했어요! 성공입니다. 박사님!” 턱이 뾰족한 젊은 남자가 말했다.(10)

TT2: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이에요, 교수님.” 턱선이 날카로운 젊은 남자가 말했다.(9)

[예 4]는 젊은 남자와 교수 그리고 질문한 사람(주인공)이 대화 참여자이다. 화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답을 기대하여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청자가 된다. [예 4]의 상황을 보았을 때, 청자는 중심 청자와 주변 청자로 나눌 수 있다. 중심 청자는 화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의도한 청자, 즉 교수이며, 주변 청자는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청자, 일반적으로 중심 청자와 함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질문한 사람(주인공)이 해당된다.

일본어 ‘先生’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스승, 의사, 정치가, 변호사 등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지도적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을 함축하는 경칭으로<sup>27)</sup> 쓰이는 것이 많다. 한국어도 일본어와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예 4]에서는 TT 독자의 의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자의 신분을 ‘박사님/교수님’으로 명시화하여 번역하고<sup>28)</sup> 있다. 다음 [예 5]는 화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

사를 한 문맥 속에서 복수 사용한 경우이다.

[예 5]

ST: 俺は後を追って走った。追いながら、僕は一体何をしているんだろうという思いが脳裏をかすめた。(186)

TT1: 나는 다시 녀석의 뒤를 쫓아갔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걸까 생각했다.(218)

TT2: 나는 뒤쫓아 달렸다. 쫓아가다가 내가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201)

‘俺’와 ‘僕’는 연령에 의한 사용 제한이 없으며 주로 대등 또는 아랫사람 앞에서 쓸 수 있다는 유사점을 가진 남성 1인칭 대명사이지만, 예를 들어 ‘俺’가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僕’는 공식적인 상황에서도 쓸 수도 있다. 즉 ‘僕’는 ‘俺’보다 정중함을 나타내는 1인칭 대명사이다. 한편 한국어의 1인칭 대명사는 ‘나’와 ‘저’가 있는데 TT에서는 ST의 해석적 유사성 유지와 문법적 제한을 고려하여 ‘나’를 대응시키고 있다. 그런데, 왜 ST에서 두 가지 인칭 직시로 표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 Ø→D 형

[예 6]

ST: 悠紀夫が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と婦人は頭を下げた。(122)

TT1: “{우리} 아들 때문에 귀찮은 일이 많지요”라고 부인은 웃으며 말했다.(144)

한 언어구조(Levinson 1983, 이익환·권경원 1992: 45, 98에서 재인용), 즉 경어(honorific)나 공손표현(politeness)과 연결되어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先生/박사님/교수님’은 화자의 사회적 신분을 기반으로 대화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관계, 즉 청자에 대한 경의를 문법화한 사회적 직시이다. 그러나 본고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인칭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직시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인칭 직시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27) 긴다이치 코스케(金田一介介) (編著) (2001) 『新明解国語辞典 第五版』, 三省堂.  
28) 한국어와 일본어는 화자의 사회적 신분을 기반으로 대화 참여자의 사회적 신분, 그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또는 그들이 지시하는 사람이나 실체물과의 관계를 문법화



TT2: {우리} 우스이가 폐가 많다며 부인이 고개를 숙였다. (132)

한국어 대명사 ‘우리’는 단순한 복수 이상의 역할(양용준 2014: 314), 즉 복수 지칭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경우에 사용하는 1인칭 단수 ‘우리+명사’<sup>29)</sup> 표현이다. ST에 없는 대명사 ‘우리’의 첨가는 그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 ST ‘悠紀夫’는 사람의 이름, 즉 고유명사이다. 앞서 고유명사 번역은 주로 음차 번역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지만 그것 이외도 그 고유명사가 지니는 기능이나 의미를 번역하는(양창현 2014: 114) 방법도 있다. TT1은 ‘悠紀夫’가 화자의 ‘아들’임을 대응시킨 것이다.

[예 7]

ST: 「彼女をどうした?」…… 「○俺のところに来た?」 (337)

TT1: “그녀를 어떻게 했지?”…… “{그녀가} 우리 집에 왔다고?” (393)

TT2: “그 여자는 어떻게 했지?”…… “○ 내 집에 왔다고?” (353-354)

[예 7]은 인지 상태가 가장 높은 ‘초점을 받는(in focus) 상태’의 대화이다. 이러한 대화는 인지적으로 지시 대상 ‘彼女/그녀’가 단기 기억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의 중심에 있다고 본다. 화자와 청자 간의 정보전달에서 담화의 장면이나 문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일 경우, 그 지시 대상은 생략 표현인 영 조응어로 나타나기도 하고(황찬호 2002: 244-245), 지시적인 인칭대명사로 나타나기도 한다(이성범 2001: 329). TT1은 후자의 경우를 선택하여 ST에서 생략된 인칭 직시를 복원(첨가)하고 있다. 그러나 초점을 받는 상태의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가 화자와 청자만이고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 명확한 경우에는 인칭대명사를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TT2처럼 지시 대상을 생략하는 영 조응어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이성범 2001: 329). 이러한 영 조응어 처리방법을 선택한 예가 다음 [예 8]이다.

3) D→ $\emptyset$  형

[예 8]

ST: 「だからあなたが負担するのは……ある人があなたに代わって支拂ってくれているの」「僕に代わって?」 (p.26)

TT1: “당신이 부담할 건 …… 어떤 분이  $\emptyset$  대신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나를 대신해서요? 어떤 사람이죠?” (32-33)

TT2: “당신이 부담할 비용은 …… 어떤 분이  $\emptyset$  대신 내주고 있어요.”  
“ $\emptyset$  대신?” (31)

조응 표현이 의미의 중복을 피하여, 표현의 잉여성을 덜어 간결하게 하는 담화의 기능이라고 볼 때, 대화 참여자인 화자나 청자가 화제로 쓰이면 그것을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황찬호 2002: 244). 따라서 TT에 있듯이 선행 인칭 직시에 대응되는 조응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맥에 별달리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자연스러운 TL을 재현하기 위하여 영 조응어라는 번역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영 조응어는 현재 담화의 물리적 맥락에 있고 형태적으로 가장 작은 것이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난이도가 낮고 정보처리에 드는 노력이 적다는 경제성이 높은 현상, 즉 관련성 높은 지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4. 명시적 및 암시적 인칭 직시 표현

구트는 TT 독자가 불필요한 정보처리 노력 없이 최대한 인지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와 일본어는 인칭에 관련된 어휘가 많고 다의적이다. 이것은 양 언어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 또는 대화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오수현 2010: 107). 따라서 인칭 직시의 선택은 화자와 청자 또는 지시체 간의 심리적 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즉 인칭 직시 표현은 SL의 배경에 있는 화자(원저자를 포함)의 사고와 이미지에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의미(sense)를 파악하여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원저자가 화자를 통하여 어떤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려

2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67930&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67930&searchKeywordTo=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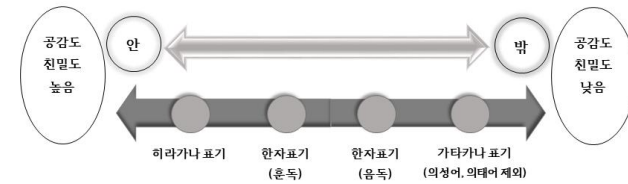
고 했는지, 또 번역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TT에 어떻게 반영하려고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RT의 현시적 커뮤니케이션(ostensive communication)의<sup>30)</sup> 견해를 통하여 살피고자 한다.<sup>31)</sup>

#### 4.1 명시적 소통으로서 인칭 직시 표현

명시적 소통은 제보적 의도를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유형이다. 일본 소설에서는 글자의 표기 차이에 의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상태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마키노 세이치(牧野成一 2018: 25-33)는 일본어 표기가 독자에게 주는 인지적 효과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일본인이 지닌 ‘안(ウチ)’과 ‘밖(ソト)’이라는 공간적 심리개념과<sup>32)</sup> 일본어 표기를 연관지어 공감도·친밀도의 계층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

일본어는 언어사용을 규정하는 사회적 요인에<sup>33)</sup> 따라 자신과 상대방이 공동 영역에 있다고 인지하면 그 상대방은 ‘안’ 측의 사람, 즉 인간관계에 거리를 두지 않는 ‘나의 세력권 내에 있는 동료’로 간주하는 한편, 이 영역을 벗어나는 상대방이나 대상은 공동 영역 외, 즉 ‘밖’의 사람, 즉 인간관계에 거리를 둔 ‘마음을 열지 않는 대상’으로 삼는다(森田良行 2003: 344). 이러한 ‘안’과 ‘밖’의 지배적 인지구조는 그림 3에서 보듯이 표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림 3 안 밖(ウチ・ソト) 공간개념에 나타나는 공감도·친밀도 계층 가설<sup>34)</sup>



마키노 세이치(2018)는 일본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의미내용을 히라가나로 표기하면 그에 대한 공감도·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가타카나로 표기하면 공감도·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한다. 또한 안과 밖의 시점에서 히라가나·한자·가타카나 표기는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배열순서대로 가장 ‘안’ 쪽인 것부터 가장 ‘바깥쪽’으로 계층구조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즉 일본인에게는 ‘안’과 ‘밖’ 또는 ‘자기’와 ‘타자’ 사이의 경계 인식이 언어 표기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예 9]

ST: 「あなた.....は? と僕は聲を出した。「もうお忘れ? タチバナです。」

(11)

TT1: “당신.....은.....?” 나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내었다. “벌써 잊었어요? 다치바나예요.” (14)

TT2: “당신.....은?” 나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다치바나예요.” (15)

30) RT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란 청자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체적인 말을 함으로써 제보할 의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표명하며 소통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현시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명시적(explicit) 소통과 암시적(implicit) 소통으로 하위분류된다(이성법 2015: 162-165).

31) 구트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번역을 분석하는 데 독자적 개념이나 이론적 틀을 가진 번역이론을 특별히 만들 필요는 없으며 RT의 개념만으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Munday 2012: 99). 따라서 본고는 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RT의 현시적 커뮤니케이션의 분석방법을 통하여 살피기로 한다.

32) 한편 한국은 ‘우리’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의하여 행동이나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결정된다. 엄정미(2007), 스즈키 아즈사(鈴木梓)·최태욱·권정애(2014)를 참조.

33) ‘상하관계’와 ‘친소관계’를 기본으로 한다(森田良行 2006: 224).

ST를 보듯이 원저자가 보통 한자로 표기되는 이름을 가타가나 ‘タチバナ’로 표기한 예이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차별화함으로써 화자가 청자에게 심리적으로 더 거리를 느낀다는 ‘밖’의 감각적인(牧野成一 2001: 169) ‘특수 효과(강조)’를 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어에는 일본어처럼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표기에 따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TT에서는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선택하고 있다. 한국어 ‘당신’은 화자와 청자가 그리 친하지 않은 관계일 때, 또는 화자가 청자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때(이혜영 2009:

34) 마키노 세이치(2018: 25)가 제시한 계층을 필자가 재작성한 것이다.

77-78), 즉 일본어에서 말하는 ‘박’의 사람에게 쓰이기도 하는 대명사다. TT1과 TT2에서 특유한 어감을 주는 인칭대명사 ‘당신’을 사용함으로써 화자와 청자 간의 심리적 거리를 반영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소설은 본질적으로 원저자의 상상에 의한 가상세계를 바탕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언어로 텍스트에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가상세계 속의 발화는 원저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하게 된 인칭대명사에 의하여 화자의 성격이나 사고 방식, 심리상태,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 및 친소관계 등에 따라 어감 차이가 나타난다.

[예 10]

ST: 俺は後を追って走った。追いながら、僕は一体何をしているんだろうという思いが脳裏をかすめた。(186)

TT1: 나는 다시 녀석의 뒤를 쫓아갔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생각했다. (218)

TT2: 나는 뒤쫓아 달렸다. 쫓아가다가 내가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201)

『変身』은 평범하고 착한 남자 주인공이 뇌 이식수술을 받은 후에 서서히 그때까지의 인격이 사라져 가는 갈등과 불안, 두려움을 그린 작품이다. 이러한 인격 변화를 표출하기 위하여 원저자는 남성 1인칭 대명사가 가진 남성성의 정도, 품위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즉 ‘俺’는 야성적·공격적 인격임에 반하여 ‘僕’는 유약한(이혜영 2009: 100) 인격을 나타낸다. 이처럼 인칭 표현이 다양한 이유로 일본인이 가진 독특한 인간관과 사회관(森本哲郎 1988: 96)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ST는 1인칭 대명사를 ‘俺’와 ‘僕’에 따른 대비를 통하여 주인공의 인격 변화와 작품 속의 역할 등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에서(이재석 2019: 192) 효과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원저자의 의도가 보인다. 일본어에는 그림 2에서 제시한 1인칭 대명사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1인칭 대명사(단수)가 ‘나’ 또는 ‘저’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일본어의 다양한 1인칭 대명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1인칭 대명사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원저자의 메시지 의도를 재현하기 어렵기도 하다. 이러한 어휘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TT1은

대상 남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 비하하는 말 ‘녀석’을 사용함으로써 원저자가 전달하려고 한 의도를 살리도록 번역하고 있다. 한편 TT2에는 그러한 표현이 안 보인다.

#### 4.2 암시적 소통으로서 인칭 직시 표현

화자는 어떠한 요건을 분명하게 직접 지시하지 않고 청자의 해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함축적으로 발화 의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듯이 어떤 함축적인 기제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유형이 암시적 소통이다.

현대일본어에서 ‘彼, 彼女’는 대명사적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平子義雄 1999: 92) 영어 대명사처럼 문맥에 의하여 변화하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예가 다음 [예 11, 12]이다.

[예 11]

ST: 彼の好物のスパゲティ・ミートソースを作ったけれど、とうとう最後まで「おいしい」といってくれなかった。(106)

TT1: 그가 좋아하는 미트소스 스파게티를 만들었지만 끝까지 맛있다고 말 해주지 않았다. (124)

TT2: 그가 좋아하는 미트소스 스파게티를 만들었지만 끝까지 맛있다고 말 해주지 않았다.(114)

[예 12]

ST: 彼女と二人きりで過ごせる時間というのが、僕にはとても貴重なものに思えた。(39)

TT1: 그녀와 단둘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48)

TT2: 배구미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란 것도 너무 소중한 것이다. (44)

일본어 대명사에는 발화 현장에 의하여 지시 대상이 바뀌지 않는 것, 즉 지시적 대명사가 아닌 것이 있다(강진문 1999: 8-9). ‘彼’와 ‘彼女’가 그것이다. [예 11] ‘彼’와 [예 12] ‘彼女’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화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이(平子義雄 1999: 92) 개입되어, ‘彼’는 ‘남자의 연인’, ‘彼女’는 ‘여자

의 연인'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한편 한국어 3인칭 대명사에는 일본어와 같은 의미를 함의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그녀' 또는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와 같은 '관형사+명사'의 형태가 대응된다(허용·김선정 2013: 175).<sup>35)</sup>

[예 11] ST '彼'는 TT에서 '그'로 옮겼다. 한국어에서 '그'는 소설과 같은 특수 장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지만(金田一春彦 1988: 167, 강범모 2018: 271-272) 일상적 대화에서는 이질적 표현이 되기도 한다.

또 [예 12] ST '彼女'는 TT1에서 '그녀'로 번역되었는데 [예 11] '그'와 마찬가지로 문어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구어, 즉 일상 대화에서는 자연스럽게 않은 경우도 있다. 한편 TT2는 TT1과 다른 방법, 여자 이름으로 옮기고 있다. 이름 호칭은 일반적으로 서로의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관계, 친한 사이에서 사용된다. TT2는 3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호칭으로 번역함으로써 ST '彼女'에 함축된 의미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 5. 결론

본고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変身』과 한국어 출판번역물 두 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에 나타난 인칭 직시 표현의 대조 분석과 인칭 표현에 담은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나 대화의 상황에 의하여 인칭을 나타내는 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그때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그것을 대신하는 어휘를 선호하여 사용하는 점이 영어와 비교할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칭 직시 표현의 유사성이 지적되는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서도 한국어가 친족명칭이나 호칭의 확장사용이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반면, 일본어는 남성·여성의 구별에 따른 위상어가 상대적으로 많고 표기에 의한 인지적 차이가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한일 또는 일한 번역을 할 때 ST에 나타난 요소만을 반사적으로 전환하면 오역이나 부자연스러운 TT를 생산

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번역자는 원문에 쓰인 내용과 거기에 담긴 화자(원저자)의 의도를 어떤 방법을 통하여 재현하면 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서 본 연구가 출발되었다. 본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성 이론을 도입한 구트의 접근법 중 간접 번역을 세 가지 유형으로 하위분류하였다.

둘째, 텍스트에 나타난 직접 번역방법은 들린 소리 그대로 옮기는 음차 번역이고, 간접 번역은 TL의 일반적 표현으로 대치하는 번역, 같은 어휘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여 ST에 있는 직시 표현을 생략하는 방법, ST에 없는 직시 표현을 첨가하는 방법이 나타났다.

셋째, RT의 현시적 커뮤니케이션의 견해를 통하여 텍스트에 나타난 인칭 직시에 담긴 의미(sense), 즉 SL의 배경에 있는 의미를 직접적인 언어로 나타나는 명시적 소통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암시적 소통의 두 가지 측면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오늘날 이문화 이해와 이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藤濤文子 2007: 9), 번역을 중개한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면서 번역에 대한 질적 향상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를 중개하는 전문가로서의 번역자는 SL과 TL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회·문화적 경향과 요인을 고려하여 거기에 나타나는 간격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의 인칭 표현은 다양하고 상대방에 따라 적절한 언어 선택과 사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를 위해서는 문법적 요소뿐만 아니라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화용의 특징으로 연구 대상을 넓힌 화용론적 연구가 한층 진행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본 연구가 인칭 직시 양상을 분석하는 것에 머무른 것, TT1과 TT2 사이에 나타난 번역 차이와 특성까지 깊게 언급하지 못한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강하고 더 전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35) 허용과 김선정(2013: 175)은 '그, 그녀'를 구어로 쓰이면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가 사용된다고 한다.

## 참고문헌

- 강범모 (2018) 『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 강수정 (2019) 「탈언어화 번역학습방법이 외국어 습득의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20(4): 7-30.
- 강진문 (1999) 日本語の「彼」「彼女」について: 韓国語との對照を通して, 『일 본어교육』 16: 7-23.
- 곽은주, 최정아, 진실로 옮김 (2005) 『말바꾸기』, 서울: 한국문화사. (Baker, Mona (1994)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김도훈 옮김 (2015) 『언어학과 번역』, 서울: 한국문화사. (Fawcett, Peter. (1996) *Translation and Language: Linguistic Theori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김태욱, 이현호 옮김 (1993) 『인지적 화용론: 적합성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파 주: 한신문화사. (Sperber, Dan and Deirdre Wilson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asil Blackwell.)
- 김효준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로다임』, 파주: 푸른사상.
- 나찬연 (2007) 『단어』, 서울: 제이앤씨.
- 목정수 (2014)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서울: 태학사.
- 박숙중 (2002) 「해석이론(意味の理論)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7: 533-551.
- 송선화 (2006) 「日本語と韓国語の人称詞の使用頻度: 對譯資料から見た頻度 差とその要因」, 『日本語教育』 114: 30-39.
- 송선화, 上原聰 (2006), 「日本語,朝鮮語,中國語の二人称代名詞における對照 研究」, 『言語處理學會年次大會發表演文集』 12: 893-896.
- 안중환 옮김 (2001) 『空間의 言語文化學』, 서울: 제이앤씨.(牧野成一 (1996) ウチとソトの言語文化學, 東京: アルク.)
- 양창현 (2014) 「적합성 이론에서 본 문화특정어의 번역특성: 『순이 삼촌』의 고 유명사 한영번역을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7(3): 101-125.
- 양창현 (2015), 「Gutt의 적합성 번역이론에 기반한 문화특정어 번역 연구: 『순 이 삼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정미 (2007) 「日本人と韓國人の言語行動における「ウチ、ソト、ヨソ」と「우 리(ウリ)、남(ナム)」: 主に敬語行動を例に」, 『言語と文化』 15: 29-42.
- 오수현 (2010) 「日本語·韓国語の人称代名詞の比較」, 『立命館言語文化研究』 22(2): 103-111.
- 우메무라 마유미 (2019) 「한일 ‘다시쓰기’에 나타난 번역자의 이미지 변이: 윤동 주 <序詩>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5(2): 159-182.
- 이성범 (2001) 『추론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이성재 (2000) 「Grice의 화용론과 관여성 이론」, 『한국프랑스학논집』 32: 141-156.
- 이익환, 권경원 옮김 (1992) 『화용론』. 파주: 한신문화사.(Levinson, Stephen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P.)
- 이혜영 (2009) 『한국어와 일본어의 젠더표현 연구』, 한국학술정보.
- 이해윤 옮김 (2009) 『화용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Huang, Yan (2007) *Pragmatics*, New York: Oxford U.P.)
- 전성기 옮김 (2001) 『번역의 오늘』.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Lederer, Marianne (1994) *La traduction aujourd' hui*, Paris: Hachette.)
- 정혜선 (2002) 「日本語と韓国語の人称詞の使用頻度: 對譯資料から見た頻度 差とその要因」, 『日本語教育』 114: 30-39.
- 최재호, 홍종화, 김종을 옮김 (2004) 『화용론 백과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Moeschler Jacques & Reboul Anne (1994) *Dictionnaire encyclopedique de pragmatique*, Paris :Éditions du Seuil.)
- 한미애 (2013) 「소설 텍스트에서 직시어 번역양상: 눈길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4(1): 389-410.
- 황찬호 (2002) 『韓·日 對照 分析』, 서울: 명지출판사.
- 허용, 김선정 (2013) 『대조언어학』, 서울: 소통.
- 허인순, 김영진 옮김 (2003) 『일본어의 시점』, 서울: 제이앤씨(森田良行 (1995) 日本語の視点, 東京: 創拓社.)
- Munday, Jeremy (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 Applications*, thir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井門亮 (2017), 「多義語の分析と語用論」, 中野弘三 (編著) 『語はなぜ多義 になるのか』, 東京: 朝倉書店, 106-127.
- 小木直美 (2016) 「日本語と韓国語の人称詞分布に関する一考察」, 『일본어학

연구』 48: 49-64.

- 加藤重弘 (2004) 『日本語語用論のしくみ』, 東京: 研究社.
- 橋高眞一郎 (2008) 「關連性理論による文學性の考察」, 『文學部論集』 92: 137-149.
- 金田一京介 (編著) (2001) 『新明解國語辭典 第五版』, 東京: 三省堂.
- 金田一春彦 (1988) 『日本語(下)』, 東京: 岩波書店.
- 小泉保 (2001) 『語用論研究 -理論と応用-』, 東京: 研究社.
- 近藤正臣 (2013) 「通譯の原理に關する省察(下)」, 『通譯翻譯研究』 13: 119-138.
- 塩田英子 (2015) 「關連性理論からみた警告表現の直示性について」, 『比較文化研究』 117: 79-90.
- 鈴木梓, 최태욱, 권정애 (2014) 「情報の共有と「ウチ」「ソト」-日本語に現れる「ウチ」意識-」, 『日本語教育』 67: 47-59.
- 鈴木孝夫 (1973) 『ことばと文化』, 東京: 岩波新書.
- 田窪行則 (1997) 「日本語の人称表現」, 『視点と言語行動』 2: 12-44.
- 鳥飼玖美子 譯 (2020) 『通譯學入門』. 東京: みすず書房. (Pöchhacker, Franz (2016)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林宅男 (2007) 「認知語用論」の理論的基盤とその方向性」, 『桃山學院大學總合研究所 紀要』 34(3): 63-83.
- 東森勳, 吉村あき子 (2003) 『關連性理論の新展開: 認知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 東京: 研究社.
- 平子義雄 (1999) 『翻譯の原理』, 東京: 大修館書店.
- 藤濤文子 (2007) 『翻譯行爲と異文化間コミュニケーション』, 京都: 松籟社.
- 藤濤文子 譯 (2013) 『翻譯研究のキーワード』. 東京: 研究社. (Baker, Mona and Gabriela Saldanha (2009)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牧野成一 (2018) 『日本語を翻譯するということ』, 東京: 中央公論新社.
- 森田良行 (2006) 『話者の視点がつくる日本語』, 東京: ひつじ書房.
- 森本哲郎 (1988) 『日本語の表と裏』, 東京: 新潮文庫.

화뉴스』, 2019년 10월 23일 검색.

예스24 (2019. 8. 6) 「올해 장르소설 판매량 역대 최고 기록」, 『채널예스』, 2019년 9월 28일 검색.

<분석텍스트>

- ST: 東野圭吾 (1991) 『変身』, 東京: 講談社.
- TT1: 이선희 옮김 (2005) 『변신』, 서울: 창해.
- TT2: 권일영 옮김 (2019) 『사소한 변화』, 파주: 비체.

<인터넷 자료>

박지민 (2019. 1.30) 「10년 동안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은 ‘작가’는 누구?」, 『문

[Abstract]

**Translation of Personal Deixis on Higashino Keigo's 'Henshin(変身)'  
Focusing on translation approach by Gutt**

Umemura, Mayum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mong all of the types of translation, literature translation is the most difficult field. Especially the novels has distinctive factor that is divided by 'linguistic symbols' such as storyteller, listener, and other point of view inside of it since it has to be focused on narratives. This linguistic symbol refers to the personal pronoun. Personal pronouns are essential in order to understand the original text because it has grammatical elements in the original text and the target language text, also it would be influenced by the pragmatic features of the language and cultural environment. Even though Korean and Japanese are generally considered to be similar languages, there are also differences especially in the expression of personal pronouns between the two languages. Therefore, in the translation, if only the elements in the original text are simply converted reflectively, it would easily cause the wrong translation or unnatural translation in the target language text. The author argues that translation, as a means of communication to fill the gap between different cultures, should be analyzed by using a pragmatic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unique personal expressions in Korean and Japanese.

▶ Key Words: relevance theory, personal deixis, interpretive resemblance, theory of sense, ostensive communication

▶ 주제어: 관련성 이론, 인칭 직시, 해석적 유사성, 의미의 이론, 현시적 커뮤니케이션

우메무라 마유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KFLT(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박사과정 수료

luv819maum@naver.com

관심분야: 문화 · 문학번역, 번역평가

논문투고일: 2020년 8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9일